

研究論文

牧隱 詩에 나타난 東人意識과 그 樣相

어 강 석*

I. 緒言	III. 牧隱 詩에 表出된 東人意識의 樣相
II. 牧隱의 東人意識 形成背景	IV. 結言

I. 緒言

牧隱 李穡은 元의 과거에 급제를 하고 원 조정의 한림학사에 제수되면서 그의 학문적 성취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로 돌아오게 된다. 목은의 귀환은 무엇보다 원 조정의 분열과 혼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고려에서 펼쳐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고 그동안 이민족에 의해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는 고려로 돌아와 恭愍王과 함께 추진하였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나 목은이 직접 창작한 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이미 고려 중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李奎報의 <東明王篇>과 李承休의 <帝王韻編>는 장편 서사시의 형식을 통해 海東文化의 우월성과 역사적 전통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하여 자주적인 면모를 나타내었다. 이 두 작품은 비록 무력에 의해서 폄박을 받고는 있지만 고려는 역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한문학 전공

와 전통이 다른 어느 민족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국가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은 益齋 李齊賢, 拙翁 崔瀼, 稼亭 李穀 등의 고려 후기 문인들에게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익재는 <東國四詠>과 고려 문인들의 행적을 소재로 시를 지었으며, <小樂府>를 지어 고려의 전래 가요를 七言絶句의 漢詩로 정착하기도 하였다. 拙翁도 우리나라의 시문이 중국의 것과 비교하여 전혀 뒤지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東人之文』을 편찬하였다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목은의 부친인 가정도 그의 시에서 <夫餘懷古>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물을 소재로 하는 歷史詩를 짓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려문인들의 東人意識, 혹은 文明意識은 고려 중기 이후 遼 金과 몽골 등과 같은 이민족의 대대적이고 빈번한 침략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혼란기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우성 선생의 논문¹⁾에서 처음 밝히고 있다. 이른 시기의 이 논문은 野蠻의 민족으로 이해되던 遼와 金, 그리고 文明의 국가로 인식되던 宋과의 외교관계 속에서 ‘文明意識’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東明王篇」과 「帝王韻紀」 등이 탄생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 이해순 선생²⁾에 의하여 좀더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는 고려 후기 원의 제과에 급제한 사대부들의 문학을 元代 문인들의 문학과 비교·검토하였다. 원대의 문인들이 異民族에 굴종하면서 겪는 비애, 갈등, 수모를 목격하거나 시를 통해 체험한 고려의 문인들은 고려에 대한 국가의식, 현실인식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 중기 이후 문인들의 대외인식은 졸고³⁾에서도 시기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

牧隱은 고려 문학의 집대성자로 평가되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목은의 동인의식에 한정하여 논의된 연구는 많지 않다. 목은은 元都에 머물면서 수학을 하였으며, 제과에 급제하여 관리로서도 생활하였다. 이 과정에서 東國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차이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원의 문화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은 아니었다. 이미 원이 이룩한 세계문화의 융합 속에서 동국만의 특성을 찾았던 것이다. 원에서 지은 시를 살펴보면 목은은 특히 東

1) 李佑成, 「高麗詩人に 있어서의 文明意識의 形成」, 『梨花史學研究』, 3(1968).

2) 李慧淳, 「高麗後期 士大夫 文學과 元代文學의 관련양상」, 『韓國漢文學研究』, 3(1985).

3) 魚江石, 「高麗 後期 文人의 元 文化 受容과 意識 變化」, 『開新語文研究』, 20(2003).

國의 역사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고려로 돌아온 후의 목은은 원에서의 경험과 국기를 이끌어가는 사대부의 중심으로서 고려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시각은 남달랐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원류를 찾고 그 우수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목은의 시 속에 내재되어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임형택 선생의 논문⁴⁾은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의 방향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목은의 문학과 사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면서 고려 후기 문인들의 동인의식과 문명의식의 가장 큰 형성 배경으로 원제국에서의 세계경험을 꼽았다. 그러나 序說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목은 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 중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타당한 검증과 작품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인의식이 목은 문학에서 가지는 의의와 가치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이 이루어졌으며, 東國의 역사와 문화가 가지는 자주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東人意識이라고 보고, 이러한 의식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실제 작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牧隱의 東人意識 形成背景

1. 東人意識의 自覺과 變化 樣相

목은은 그의 나이 20세가 되는 1347년(丁亥, 충목왕3) 원의 수도인 大都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있던 부친 가정을 따라 갔다가 그곳의 國子監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다음 해에 정식으로 국자감의 생원이 되었다. 이곳에서 3년간의 수학은 목은 학문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수많은 석학들과 다양한 학문 세계를 접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목은은 원의 국자감에 입학하여 수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언어가 다른 것이었다. “해외 동년의 아들이

4) 林煥澤, 「고려 말 文人知識層의 東人意識과 文明意識 牧隱文學의 논리와 성격에 대한 序說」, 『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一潮閣, 1996).

문 앞에 있는 오늘 이 사람이라. 어린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 漢語는 도무지 잘 되지 않네(海外同年子 門前此日身 童心猶未化 漢語摠非眞)⁵⁾에서도 이와 같은 한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때는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기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고려인들 중에 漢語나 몽고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목은이 원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들 언어를 배웠다는 기록이 없고, 부친인 가정도 이미 고려로 귀환한 이후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 있어서의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였다. 더구나 민족에 따라 차별이 심하던 원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던 고려인으로서 받는 소외감은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음을 볼 수 있다.

목은이 처음 원나라에 들어갔을 때, 원의 문사들이 그를 조금 알아보고 조롱하기를 “잔 들고 바다에 들어오니 바다 넓은 줄 알았구나”라고 하자, 목은이 이에 응답하여, “우물에 앉아 하늘 바라보며 ‘하늘 좁다’ 하는구나”라고 하니, 조롱하던 자들이 더 이상 뒤를 잇지 못하였다⁶⁾

원의 문사들에 비해 조금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과 목은의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시 고려 문인들이 가졌던 원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약소국의 이민족으로서 받는 차별은 원에 머물며 계속 받았을 것이며, 이러한 기회는 비록 세계의 문화가 집중된 원의 구성원이라는 인식보다는 어쩔 수 없는 피지배민족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태어난 고려라는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高麗學子縱眞才	고려의 과거 응시생 비록 참 재주 있어도
只與雲南作對來	다만 운남 사람과의 상대로만 여긴다네.
況我不文人共鄙	하물며 나는 문장이 못하여 남들이 비루하게 여기니
雖天有命衆應猜	비록 천명이 있다 해도 모든 사람들 응당 시기하리.

5) 『牧隱詩藁』 卷2, <謁成誼叔侍郎>. 이하 『牧隱詩藁』는 『詩藁』, 『牧隱文藁』는 『文藁』로 표시한다.

6)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牧隱初入元朝, 文士稍輕之, 嘲曰, 持杯入海知多海. 牧隱應聲曰, 坐井觀天曰小天, 嘲者更不續.”

欲從明月重攀桂	밝은 달을 따라 거뭇 계수나무에 오르려 하니
已見黃花又著槐	이미 누런 꽃이 다시 괴목에 붙었음을 보았다네.
況此冬寒襲貂帽	더구나 이 겨울 추위 모피 모자를 파고들지만
風霜養出棟樑材	바람, 서리가 동량될 재목을 자라게 한다네ㄱ

이 시의 首聯에서 목은은 이러한 중국 내의 불평등한 사정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저 멀리 雲南의 다양한 소수민족들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頷聯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하늘의 도움이 있어 급제를 한다고 해도 그들의 시기가 심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목은은 이러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頸聯과 尾聯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눌러버릴 수 있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틀림없이 자신이 계수나무의 가치를 꺾어 보이겠다고 예견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이처럼 고통스럽지만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자라난 재목이 나라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그 재목이 바로 자신임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다.

이 시는 목은이 26세 때 지은 작품이다. 이해 10월 원의 태자 책봉을 축하하기 위해 고려에서는 金希祖를 사신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목은이 서장관이 되어 함께 원나라로 가는 도중에 지은 시이다. 목은은 이해 5월과 9월에 시행되었던 과거와 향시에서 모두 장원을 하고, 다시 원에서 실시되는 會試에 응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실시되던 원의 會試는 蒙古人, 色目人, 漢人의 순서에 따라 급제를 안배하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신분상 네 번째에 속하는 南宋人들은 아예 과거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었다. 원에서 과거제도를 이와 같이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학문적 수준이 떨어지는 몽고인과 색목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배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계산에서였다. 고려인들은 이들 네 가지의 계급으로 나누어진 민족 계층 중에서 세 번째인 한족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내의 漢人들은 고려인을 자신들과 동류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자신들과 다른 보잘 것 없는 변방의 이 민족으로 취급한 것이 바로 현실이었다.

7) 『詩藁』 卷2, <予將會試京師 會國家遣金判書希祖入賀立東宮 因以書狀官偕行 途中有作(其二)>.

이와 같이 목은은 원도의 수화과정에서 세계제국을 이루어 ‘四海一家’를 부르짖지만 고려인은 결국 변방의 이민족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목은은 이러한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도 충분히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정통성에 대한 자긍심을 東人意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동인의식은 이미 고려 중기 이후 외세의 침략이 거세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민족의 연원과 역사성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독자적으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를 발전시키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외세에 의해 간섭되는 고려사회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위안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목은의 문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중화의 문화와 동국의 문화가 서로 비교되고, 문화적 역사성의 長久함을 견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목은은 우리나라 역사의 연원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또한 중화의 힘에 꺾이지 않고 꺾듯하게 생활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중화 문화의 거센 도전을 힘껏 격퇴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장쾌하게 묘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檀君, 箕子, 東明王 등과 같이 동국의 역사를 일으킨 시조들의 업적을 칭송하고, 高句麗의 安市城 戰鬪와 같이 중화세력의 침략에 당당히 맞서 격퇴시킨 역사적인 사건들을 시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동국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관심은 목은이 원에서 생활하거나 원과 고려 사이를 빈번하게 왕래하던 시기에 지어진 <浮碧樓>, <貞觀吟>, <婆娑府> 등과 같은 청·장년기 시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목은이 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형성된 東國과 東人에 대한 인식이 그의 문학창작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젊은 시기에 형성된 동인의식은 고려로 돌아와서도 꾸준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조선 나라를 세운 것은 실로 唐堯 무진년이었다. 비록 대대로 중국과 통하긴 하였으나 중국이 일찍이 신하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 때문에 주 무왕이 殷太師를 봉하고도 신하를 삼지 아니하였다. 그후 신라, 고구려, 백제가 술발처럼 대치하여 서로 웅장하여 秦, 漢 이래에 혹은 통하기도 하고 혹은 절교도

하였는데, 우리 시조가 굉장한 재능과 원대한 전략으로 唐의 말기에 일어나서, 드디어 삼국을 합병하고 그 땅에서 왕이 되어 5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 왔으니, 대개 5백 년이 되어간다.⁸⁾

이것은 俛斯守가 사신의 임무로 고려에 왔다가 다시 원의 조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陶隱 李崇仁, 樵隱 李仁復 등의 送詩도 있다. 여기에서 목은은 고려의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고 문화가 번영하였음을 자부하고 있다. 단군이 조선을 건국한 것이 요임금 무진년이라는 내용은 그의 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에 비하여 결코 짧지 않으며, 중국도 신하로 여기지 않았고 당당히 동등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목은의 동인의식은 元都에서의 修學生活과 원과 고려를 왕래하던 청·장년기에 형성된 것이며, 이 시기의 시문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청·장년기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동인의식은 고려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견지되었다.

2. 高麗 後期 文人의 影響과 變容

목은의 문학은 그의 座主人 益齋 李齊賢의 독려가 큰 자극이 되었다. 익재도 충선왕을 따라 원도에서 당시 중원의 유수한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학문세계를 넓혔으며, 降香使로 가는 충선왕을 따라 강남을 유배를 떠난 충선왕을 찾아 중국 서북의 끝인 吐蕃에까지 다니면서 많은 중국의 문물과 생활상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고려 고유의 문화와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同異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익재는 귀국 후 고려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시를 쓰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을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권면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가 고려 속요와 풍습 등을 소재로 하여

8) 『文藁』 卷9, 「送俛符寶使還詩序」, “朝鮮氏立國, 實唐堯之戊辰歲也. 雖世通中國, 而中國未嘗臣之, 是以 武王封殷太師而不之臣. 其後新羅, 百濟, 高句麗鼎峙相雄長, 秦, 漢以降, 或通或絕, 我始祖以宏材遠略, 起於唐季, 遂併三國而王其地, 自五代以迄于今, 蓋將五百年矣”

작은 악부의 형식으로 지은 小樂府로 나타났다.

어제 곽충룡을 만나 보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급암이 소악부에 화답을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일에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 대해서 ‘유빈객이 지은 죽지가는 기주와 삼협지역의 남녀들이 서로 즐기는 사연이고 소동파는 이비, 굴원, 초희왕, 항우의 일을 엮어서 장가를 지었는데 옛사람의 것을 답습한 것이었던가? 급암은 별곡 중에서 마음에 느낀 바를 취하여 새로운 가사를 짓는 것이 옳을 것이다’하고 두 편을 지어 촉발한다⁹⁾

익재가 먼저 소악부를 짓고 이를 급암 민사평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에 급암도 6수의 소악부를 지어 화답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익재는 급암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목은에게도 같은 시를 보내어 화답하도록 권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익재가 보낸 소악부에 급암이 화답하기가 어려워 짓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곽충룡에게 듣고 다시 두 수의 소악부를 지어 보내주면서 보낸 글이다. 여기에서 익재가 급암에게 보낸 시는 소악부 뿐만이 아니었다. 『급암선생시집』 권3에 소악부와 함께 보낸 시가 8제 9수, 『목은시고』 권5에는 소악부는 없고 그 외의 소재로 지은 8제 9수의 시가 존재한다. 모두 고려의 문인들이 서로 교유하였던 고사를 소재로 하여 지은 것이다. 즉, 익재는 우리나라에서 시를 지을 때 항상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짓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고사를 가지고도 충분히 시를 지을 수 있음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근체시 뿐 아니라 樂府詩까지도 예를 들었으며, 이를 급암과 목은에게 보내 주었던 것이다.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익재는 소악부와 함께 근래에 지은 다른 시도 급암과 목은에게 보내 주었다. 이 시들은 『목은시고』 권5의 편차를 살펴볼 때 1358년 공민왕7, 戊戌) 여름에 지은 것이다. 급암은 동국의 고사를 소재로 한 시와 소악부에 화답을 하였고, 목은은 소악부를 제외한 그 외의 시에 모두 화답을 하고 있다. 급암과 목은의 詩題를 보면 익재의 시에 화답을 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9) 李齊賢, 『益齋亂藁』 卷4: “昨見郭翀龍 言及菴欲和小樂府 以其事一而語重 故未也 僕謂劉賓客作竹枝歌 皆夔峽間男女相悅之辭 東坡則用二妃屈子懷王項羽事 綴長歌 夫豈襲前人乎 及菴取別曲之感於意者 翻爲新詞 可也 作二篇挑之”

	『益齋亂藁』卷4		『及菴先生詩集』卷3		『牧隱文藁』卷5
45	樂軒李侍中 在通津山齋 金百鎰 李松縉兩學士 皆卓然師往謁	1	右金李兩學士 山人卓然師 謁李侍中山齋詩	1	樂軒李侍中 在通津山齋 金百鎰 李松縉兩學士 皆卓然師往謁
46	許文敬公 李判樞尊庇 俱以東征事 出慶尙道 共訪其同年朴秀才祿之宜春田舍 各留詩一篇	2	右許文敬公李樞相同 訪宜春君 同年朴秀才詩	2	許文敬公 李判樞尊庇 俱以東征事 出慶尙道 共訪其同年朴秀才祿之宜春田舍 各留詩一篇
47	洪南陽奎聞妙蓮寺無畏國師善吹笛 自袖中琴八方丈 請之國師 爲作數弄	3	右洪南陽自袖中琴謁無畏國師 國師爲之數弄詩	3	洪南陽奎聞妙蓮寺無畏國師善吹笛 自袖中琴八方丈 請之國師 爲作數弄
48	宋樞相和過華嚴六具僧統於興王寺 具公欲觀其弄杖 宋幅巾躍馬 爲之移日	4	右興王云具僧統 請宋樞相弄杖詩	4	宋樞相和過華嚴六具僧統於興王寺 具公欲觀其弄杖 宋幅巾躍馬 爲之移日
22	寶蓋山地藏寺 用小陵龍門奉先寺韻	5	右地藏寺詩老杜韻	5	寶蓋山地藏寺 用小陵龍門奉先寺韻
	없 음	6	右金李相靑岳莊詩仁衍	6	右金李相靑岳莊詩
	없 음	7	右雪後寄林掾詩 傑	7	右雪後寄林掾詩
53	後儒仙歌 爲崔拙翁作 示及菴	8	右儒仙歌 崔拙翁	8	後儒仙歌 爲崔拙翁作 示及菴
49	小樂府	9	右小樂府六章	9	없 음

이처럼 익재는 급암 뿐 아니라 목은에게도 동국의 고사를 사용하여 시를 짓도록 권면하였으며, 이에 목은도 화답하였다. 시의 소재를 고려의 생활에서 찾으려는 당시의 사회적 공감대는 고려 후기 문단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에 들어가 장기간 생활하였던 사람들의 공통적이 특징이 바로 우리나라의 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목은의 동국에 대한 인식은 앞세대 문인들의 권면에 힘입어 점차 중·노년기에 들면서 초기시에서 보인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의 회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천과 풍속으로 그 관심을 돌리고 있다. 즉 고려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고향인 韓山은 비록 小邑이지만 우리 부자가 중국의 과거에 등과함으로써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東國에 韓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勝覽을 노래로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8영을 짓는다.¹⁰⁾

여기에서 목은은 자신의 고향인 韓山이 小邑인데도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 두 父子가 중국의 과거에 올라 명성을 떨쳤기 때문임을 역설하고 있다. 목은과 그의 아버지인 가정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기는 하지만 목은의 고향인 한산에 대한 강한 애정과 친밀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산의 자연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 특징을 읊고 있는 시를 볼 때 고려의 산천과 경치에 대한 자부심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한 중국에 대한 동경과 중국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시를 창작하던 것과는 큰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국의 산천과 풍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도 동국 의식의 한 소산임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목은은 자신의 재주가 뛰어난을 믿고서 俚語를 사용하여 시를 지은 것이 많다”¹¹⁾는 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국 고유의 속담이나 풍속, 식물, 놀이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즉 동국의 작가가 동국 고유의 풍습과 자연을 소재로 동국의 시를 지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목은 시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 후기 문인들 중에서 동국 시문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모으고 비평하여 그 우수성을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拙翁 崔瀼이다. 그는 원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에는 수많은 시선집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시인들과 명편들이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모아서 후세에 전하는 것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평생의 사명으로 『東人之文』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하늘이 皇元을 열어 列聖이 연이어 나와 천하가 문명으로 밝아졌고, 과거를 마련하여 선비를 뽑은 것도 벌써 7회나 거쳤다. 德化가 크게 일어나

10) 『文藁』 卷3, <吾家韓山雖小邑 以予父子登科中國 天下皆知東國之有韓山也 則其勝覽不可不播之歌章 故作八詠云>.

11) 曹伸, 『搜聞瑣錄』: “牧隱自負才豪 但多用俚語以作詩.”

文軌가 다르지 않은지라 비록 나같은 疎淺으로도 역시 일찍이 외람되이 합격되어 이름을 金榜에 걸고 중국의 才子와 더불어 서로 접촉할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간혹 東人の 文字를 보기 원하는 자가 있었는데 나는 다만 만들어진 책이 있지 않다고 대답하고는 물러나 부끄럽게 여겼다. 이에 비로소 類書를 편찬할 뜻을 두고 東으로 돌아와서 10년을 두고 일찍이 잇은 적이 없었다. 지금 집에 간직된 文集에서 찾아내고, 本家에 없는 것은 두루 남에게 빌리어 모두 모아 엮어서 그 다르고 같음을 교정했다. 新羅 崔孤雲에서 시작하여 忠烈王 시대의 여러 名家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詩를 뽑아서 題를 五七이라 하고, 약간의 문장을 뽑아서 題를 千百이라 하고, 약간의 駢驪文을 뽑아서 題를 四六이라 하고, 총괄하여 제목을 東人文이라 하였다. …그러나 동방의 작문 체제를 보고자 할 진대, 이것을 버리고 달리 구할 길은 없다.¹²⁾

이처럼 원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졸용은 동방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원나라였기 때문에 원도의 문화는 다국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고려의 문인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문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고려의 문화가 절대 다른 여타의 문화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또 나는 일찍이 말하기를, “말이 입에서 나와 글이 이루어지는데 중국 사람의學은 그 固有를 바탕삼아 나아가므로 정신을 많이 허비하지 않고도 세상에 뛰어난 인재를 쉽게 헤아릴 수 있다. 우리 東人の 경우는 언어가 이미 華夷의 구별 있어서, 천부적 자질이 진실로 명민하고 예리하여 천백 배 힘을 쓰지 않는다면 학문에 있어 어찌 성취함이 있을 수 있으랴! 다만 一心의 妙를 의지하여 천지사방에 통달한다면 털끝만큼도 차이도 없을 것이요, 得意의 경지에 이른

12) 崔溱, 『拙稿千百』 卷2, 「東人之文序」: “幸遇天啓皇元, 列聖繼作, 天下文明, 設科取士已七學矣. 德化丕昌, 文軌不異, 顧以予之疎淺, 亦嘗濫竊掛名金榜, 而與中原俊士得相接也. 間有求見東人文字者, 予直以未有成書對, 退且恥焉. 於是始有撰類書集之志, 東歸十年, 未嘗忘也. 今則搜出家藏文集, 其所無者, 偏從人借, 哀會採摭, 校厥異同, 起於新羅崔孤雲, 以至忠烈王時, 凡名家者, 得詩若干首, 題曰五七, 文若干首, 題曰千百, 駢驪之文若干首, 題曰四六, 摠而題其目曰東人文. …然欲觀東方作文體製, 不可捨此而他求也.”

다면 오히려 어찌 스스로 굴하여 그네들에게 많이 양보하겠는가.¹³⁾

졸용은 또, 우리의 문자가 중국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문장과 시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몇 갑절의 노력을 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느끼고 그것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하여도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감정과 느낌으로 지은 것은 그들과 비교하여도 조금도 뒤지지 않으니 굳이 애석해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¹⁴⁾

이처럼 동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독자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한 것은 목은 이전의 문인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고려가 몽고군의 침입을 받아 전통성을 위협받을 때부터 꾸준히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목은은 고려 후기 익재 이세현, 졸용 최해, 급암 민사평, 가정 이곡 등에게 학문을 전수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미 전 시대부터 형성되어 이어지던 동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東方磊落多英雄	우리나라에는 뜻이 큰 영웅이 많은데,
文章氣焰摩蒼穹	문장의 기세가 푸른 하늘에 닿았네.
遺芳膾炙露後人	남긴 향기가 후대 사람을 적시니
爪留泥上如飛鴻	날아가는 기러기가 진흙 위에 발자국을 남긴 듯.
名家全集不易得	名家的全集은 쉽게 얻을 수 없는데
良金美玉沙石中	良金과 美玉이 모래 속에 있네.
孤雲以來多作者	孤雲 이래로 작가가 많아서
筆戰有如龍鬪野	문필의 우열을 다투어 용이 들판에서 싸우는 듯
中原歆美小中華	中原에서도 小中華라고 부러워하니
日星晃朗光相射	해와 별처럼 맑은 빛을 밝하네.

13) 같은 곳: “又嘗語之曰, 言出乎口而成其文, 華人之學, 因其固有而進之, 不至多費精神, 而其高世之才, 可坐數也. 若東人, 言語既有華夷之別, 天資苟非明銳, 而致力千百, 其於學也, 胡得有成乎. 尚賴一心之妙, 通乎天地四方, 無有毫末之差, 至其得意, 尚何自屈而多讓乎彼哉?”

14) 최해의 민족문화론에 대해서는 韓榮奎, 「최해의 시문학과 선시의식」, 성대 석사논문(1992)와 김성룡, 「최해의 민족문화론」, 『여말선초의 문학사상』(한길사, 1995)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況有益齋集大成
 千百五七皆精英
 駢驪四六亦得體
 陳情頌德和而平
 拙翁豪氣自無敵
 拾盡三韓高律格
 同時諸賢不入選
 似重耳聞輕目擊
 晚年留與驪江翁
 直與江水流無窮
 老者仙去少者繼
 我愛關門追古風
 關門學力有餘地
 身如蠹魚寄文字
 旁求博采如雲屯
 驚我老目迷同異
 我今病餘心力衰
 不分菽麥成白癡
 敢從管中窺豹斑
 氣息不絕如抽絲
 且待秋風涼滿天
 精神爽快興居便
 便當執筆略批點
 君家更肯謀流傳

더욱이 益齋가 집대성하여
 散文과 詩가 모두 빼어나네.
 駢儷문이 또한 體를 얻었고
 陳情과 頌德은 온화하고 평온하네
 拙翁의 호방한 기운은 절로 맞설 이 없고
 三韓의 높은 율격을 다 모았네.
 같은 시대에 여러 분들은 뽑히지 못했는데
 들은 것을 중히 여기고 본 것을 가벼이 여긴 듯 하네
 늘그막에 驪江의 늙은이와 머물면서
 곧바로 강물이 끝없이 흐르는 듯하였네.
 늙은이가 죽자 젊은이가 잇는데
 나는 古風을 좇는 關門을 사랑하네.
 關門의 학력은 여유가 있는데
 몸은 좀벌레처럼 문자에 기탁하네.
 두루 찾고 널리 채집하여 쌓인 구름과 같은데
 나의 노숙한 눈으로도 異同을 헤매게 하네.
 나는 지금 앓은 뒤라 마음과 힘이 쇠약하여
 콩과 보리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백치가 되었네.
 어찌 대통 구멍으로 표범의 얼룩을 엿보라?
 호흡의 기운은 실을 뽑듯이 끊어지지 않네.
 장차 가을바람을 기다려 서늘함이 하늘에 가득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지내기가 편하리
 곧 붓을 잡고 대략 비점을 찍을 것이니
 그대의 집에서는 더욱 즐겨 유전시킬 것을 꾀하게나.¹⁵⁾

이것은 閔安仁이 拙翁 崔瀆의 뒤를 이어 새롭게 詩選集을 편집하였는데, 그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준 詩이다. 민안인은 동국 명현들의 시를 보고서 『東人之文』의 뒤를 이으려고 하였던 사람이다.¹⁶⁾ 목은은 민안인과 類選作業과 批點을 함께 가하면서 주도적으로 일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도 목은은 孤雲 崔致遠 이래로

15) 『文藁』卷17, <閔祗候安仁, 集諸家詩稿 將續拙翁東文 予喜之甚 作短歌以勸其成>.

16) 『詩藁』卷22, <閔子復以本國名賢詩相示 將繼東人之文 喜之甚 因題>.

무수히 많은 문인들이 이어졌으며, 그들의 노력이 쌓여 지금과 같은 원숙한 문화를 이루게 되었음을 자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목은의 시대에는 앞 세대 문인들에 의하여 동국의 문학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목은은 이들 문인들과 학문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동국의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권면되었으며, 직접 중국의 인물이나 고사가 아닌 동국의 고사와 인물로 시를 지을 수 있도록 화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목은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좀더 나아가 동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우리 고유의 지명, 풍습, 언어 등을 과감하게 시에 사용함으로써 중국문학과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요컨대 원과 고려를 오가면서 생활하였던 목은의 청·장년기의 시에서는 檀君, 箕子, 東明王, 高句麗의 安市城 戰鬪와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명이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 시들은 <浮碧樓>, <貞觀吟>, <婆娑序> 등과 같이 목은 시의 대표작들이다. 이와 같은 소재의 시들은 동인의식의 고취와 민족적 자부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원의 관직을 사직하고 고려로 돌아온 목은의 중·노년의 시에도 동국의 문화를 소재로 하는 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목은은 우리나라의 풍습과 음식, 속담 등을 소재로 자연스럽게 시를 창작하였으며, 고유어를 시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려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中原과 邊方으로 대별되던 華夷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시를 지음으로써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고자 하는 인식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목은의 인식은 益齋, 拙翁, 稼亭 등과 같은 앞 세대들의 격려가 큰 촉매로 작용하였다. 청·장년기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중국에 비하여 뒤지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대 우리나라의 건국 시조들과 중국의 침략을 물리친 역사적 사건 등을 시의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중·노년기에 들어서는 평범한 우리나라의 생활 풍속, 음식, 속담, 고유어 등을 사용하여 東國의 시를 지으려는 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III. 牧隱 詩에 表出된 東人意識의 樣相

1. 東國歷史에 대한 關心 表明

고려 중기 이후 나타나는 영사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재로 창작된 것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李奎報와 李承休는 <東明王篇>과 <帝王韻紀>라는 장편 서사시를 통해 海東文化의 우월성과 역사적 전통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나타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삶을 담고 있는 詩는 元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익재 이제현을 비롯하여, 가정 이곡 등이 대표적인 문인들이다. 물론 익재의 경우 역사시의 소재는 모두 중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후반기 시를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소재로 시를 지으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金富軾, 崔譙, 鄭絳, 郭預의 고사를 소재로 ‘東國四詠’이라는 시를 짓고, 그의 문생과 후학들에게 화차운 하도록 한 것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속요를 소재로 한 소악부의 창작은 익재가 가지고 있던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악부와 함께 창작한 몇 수의 시들도 또한 고려 문인들의 사적을 담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의 시창작을 적극 권면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¹⁷⁾

가정의 영사시도 중국의 역사를 소재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扶餘懷古>, <次江華郡>, <登鐵嶺> 등 몇 편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백제의 온조왕이 고구려의 동명성왕의 아들임을 밝히거나 몽고군의 침략에 항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정도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익재와 가정의 영향을 받은 목은의 경우는 이들 보다 더욱 확고한 민족 의식을 그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晉陽公子結豪客

진양공자(唐太宗)는 호걸들과 결탁하여

17) 익재 이제현의 역사시 창작에 관한 것은 김건곤, 「이제현의 역사시 연구」, 『고려시대 역사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에 자세하다.

風雲壯懷滿八極	풍운의 장한 뜻이 천하에 가득했네
赫然一起揮天戈	우뚝히 떨쳐 일어나 天戈를 휘두르니
隋堤楊柳無顏色	수나라 제방의 버들이 빛을 잃었네
已踵殷周成武功	은나라 주나라 이어 무공을 세웠으니
宜迫虞夏敷文德	舜과禹를 따라 문덕을 펼쳐야 한다네.
持盈守成貴安靖	커다란 공적을 지키며 안정을 귀히 여겨야지,
好大喜功多反側	큰 공만 좋아하면 도리어 뒤집히기 쉽다네.
三韓箕子不臣地	삼한은 기자가 신하 되지 않은 땅
置之度外疑亦得	그냥 버려 두는 것이 득이 될 법하건만
胡爲至動金玉武	어찌하여 금옥 같은 군사를 움직여서
喻枚自將臨東土	말에 재갈 물리고 동쪽으로 치러 왔나
貔貅夜擁鶴野月	사나운 군사들 요동땅에서 밤을 새우고
旌旗曉濕鷄林雨	깃발은 계림의 새벽 비에 젖었네
謂是囊中一物耳	주머니 속의 물건처럼 쉽게 여기더니
那知玄花落白羽	어찌 알았으랴 흰 화살이 눈에 꽃힐줄을
鄭公已死言路澁	정공은 이미 죽어 언로도 막혔으니
可笑豐碑甃復立	풍비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섬이 우습구나
回頭三叫貞觀年	고개돌려 정관년을 세 번 소리치니
天末悲風吹颯颯	하늘 끝에서 슬픈 바람만 휘휘 불어오네 ¹⁸⁾

이 시도 원도에서 수학을 하다가 처음으로 휴가를 얻어 고려로 돌아오며 中國 河北省 景縣 근처에 있는 榆林關에서 묵으며 지은 묵은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豪放하고 거침없는 시상의 전개와 짜임새 있는 시어들은 당시 묵은의 활달하고 자신감에 가득 찬 심리적 상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晉陽公자는 唐 高祖 李淵이 晉陽公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唐 太宗을 지칭한 것이다. 唐 太宗 李世民은 아버지 高祖를 도와 隋를 멸망시키고 唐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후 태자인 형과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 高祖에 이어 두 번째 황제가 되었다. 당 태종은 중국 역사상 “貞觀의 治”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사회적 안정과 문물의 번성을 이루어 후대의 제왕들이 본받을 만한

18) 『詩藁』 卷2, <貞觀吟 榆林關作>.

표상으로 삼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목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 겨우 사리판단을 잘못하여 몸을 상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隋를 멸망시키고 당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면 文治를 통해 이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큰 공을 탐하기만 하여 도리어 화를 당했다고 표현하였다. 우리 삼한은 이미 箕子 때에도 중국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한 독자적인 국가요 민족이었는데, 이와 같은 東土를 공격하러 왔으니 아무리 날래고 용맹한 군사들이라도 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주머니 속의 물건처럼 쉬운 일이라고 호언하던 당 태종이 도리어 화살에 눈을 잃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으며, 틀림없이 고구려 정벌을 반대하였을 鄭國公 魏徵을 생각하고 그의 비를 다시 세웠다는 사실을 조소하고 있다.

마지막 연의 “고개돌려 정관년을 세 번 소리치니 하늘 끝에서 슬픈 바람만 휘 휘 불어오네(回頭三叫貞觀年, 天末悲風吹颯颯)”라고 한 것에서는 목은의 비분강개함을 느낄 수 있다. 당 태종의 강력한 군사들을 무참히 패배시킨 당시 삼한의 기개와 대비되어 외세를 물리치지 못하고 꺾박을 받고 있는 고려의 현실은 목은으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슬픔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에 대하여 조선시대 서거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목은의 시 <貞觀吟>은 호방하고 굳세며, 시원스럽고 웅장하다. 그 시의 한 구에 “주머니 속의 물건같이 쉽다고 하더니 현화가 흰 깃에 떨어질 줄 어찌 알았으랴!”라 하였다. ‘玄花’는 당 태종의 눈을 말하고, ‘흰 깃’은 화살을 말한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려 안시성에 이르렀다가 화살에 눈을 맞아 되돌아갔다고 한다. 『唐書』와 『通鑑』을 살펴보면 모두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사관들이 필경 중국을 위하여 쓰기를 꺼렸을 것이니, 그 기록되지 않은 것을 괴이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다만 김부식이 지은 『三國史記』에도 역시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으니, 목은은 어디서 이 일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다.¹⁹⁾

19) 徐居正, 『東人詩話』 下: “牧隱貞觀吟豪健快壯 其一聯曰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玄花言其目, 白羽言其箭 世傳唐太宗伐高麗 至安市城 箭中其目而還 考唐書通鑑皆不載此事 雖有之 當時士官必爲中國諱 無怪乎其不書也 但金富軾三國史亦不載 未知牧老何從得此”

여기에서 서거정은 중국 측의 史書에서 당 태종에 관한 위의 사실을 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은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목은이 알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목은이 직접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의 전적이나 말을 들어 알게 되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시 속에 표현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현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만큼 목은이 인식한 東人意識은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我今長吟過遼野	나는 지금 길게 읊조리며 요동별관을 지나는데
山路縈紆知幾舍	산길이 뒤엉켜 있으니 어디쯤이나 되었는가?
忽此數家鷄犬聲	홀연 여기 몇 집에서 닭과 개 짖는 소리 들리더니
當道誰何皆老兵	길에서 누구냐고 묻는 이 모두 늙은 병사이네.
鴨江東岸是吾土	압록강 동쪽 언덕은 우리 땅.
靑嶂白波相媚嫵	푸른 산봉우리와 흰 물결이 곱구나.
東韓仁壽君子國	동쪽 삼한은 仁壽한 군자의 나라로
唐堯戊辰稱始祖	요임금 무진년에 시조를 일컬었네.
綿歷夏商不純臣	하와 상을 거치며 순전히 신하 노릇은 않았고
箕子受封師道新	기자가 봉해지니 사도가 새롭게 되었네.
九疇森列照天下	구주가 삼엄하게 펼쳐져 천하를 비추었으니
當時親炙知何人	당시에 친히 감화받은 이가 누구이던가?
婆娑居民語音別	파사부에 사는 사람들은 말소리가 다르니
咫尺風氣如胡越	지척간의 풍기가 마치 호와 월처럼 판이하네.
嗚呼世變日趨末	아, 세상은 변하여 나날이 말단으로 달려가는데
楊花隨風亂飛雪	버들꽃은 바람 따라 날리는 눈발처럼 어지럽네. ²⁰⁾

이 시는 목은의 나이 27세가 되는 1354년(甲午, 공민왕3) 2월에 실시된 원의 會試에서 第2甲 第2名으로 합격을 하고, 3월 고려로 돌아오는 도중에 지은 것이다. 파사부는 고려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遼寧省 鳳城縣(지금

20) 『詩藁』 卷3, <婆娑府>.

의 遼寧省 丹東市 鳳城)에 있던 곳이다.

원의 制科에 급제를 하고 금의환향하는 목은은 압록강을 마주한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강 건너 고국의 산천을 보고 ‘媚嫵’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이 시에서도 고려의 깊은 역사와 정통성이 중원의 나라와 민족에 비하여 훨씬 더 뛰어남을 말하고 있다. 요임금과 동시대에 나라를 세운 檀君의 일을 회고하고, 독자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온 민족으로 성인들의 교화가 직접 이르러 현재와 같은 군자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함께 고려와 중원의 민족을 비교해 보고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적으로 접해있지만 그 수준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역설하고 있다.

東方世教儘悠悠	우리나라의 세교가 지극히 아득한데
箕子封來又幾秋	기자가 봉해진 이래로 또 몇 해인가?
禹範九疇明似日	우 임금의 홍범구주 태양처럼 밝으니
蒼生萬古倚洪休	만고에 창생이 큰 복에 의지하게 되었네. ²¹⁾

이 시도 위에 든 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치 고시의 형태로 쓰여진 앞의 시를 절구의 형태로 요약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 작품은 1353년(癸巳, 공민왕) 5월 益齋 李齊賢이 知貢舉로, 陽坡 洪彥博이 同知貢舉가 되어 실시한 과거에서 목은이 장원을 하였는데, 이 때 종장에서 썼던 것으로 보이는 시이다. 그러니까 앞의 작품보다 1년 먼저 쓴 것이다.

또한 “일찍이 조천석이 있었다는 말 들었거니, 단군은 빼어나고 밝아 군웅의 으뜸이었다네(聞說朝天曾有石, 檀君英爽冠群雄)”²²⁾에서처럼 檀君始祖와 ‘朝天石’의 전설을 담고 있는 高句麗의 始祖 東明王 神話 등에도 큰 관심과 깊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동명왕 신화는 목은 시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浮碧樓> 시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목은의 초기 시에는 단군과 동명왕 등의 신화를 소재로 하여 고려와 민

21) 『詩藁』 卷2, <終場>.

22) 『詩藁』 卷3, <西京>, “方舟容與水如空, 驛騎飛塵一瞬中. 辦得兩湯雖甚易, 哦成七字却難工. 城頭老樹猶遮日, 山頂高樓遠引風. 聞說朝天曾有石, 檀君英爽冠群雄”

족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려의 문화가 중원의 문화와 비교하여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뒤지지는 않는다는 문화적 자긍심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목은의 시에서 강조되는 東人意識은 고려 중기 李奎報, 李承休 등이 마련한 기틀을 바탕으로 목은에게 이르러 다시 한번 발현되었다고 하겠다.

東人意識이 목은의 시에서 특별하게 강조된 것은 20여 세의 젊은 나이로 중원에 들어가 수학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에서 3년간 수학하는 기간 동안 목은은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 고려인들의 실상을 보았으며, 중원의 문화에 결코 뒤지지 않는 고유한 고려 문화의 우수함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변방의 오랑캐로 멸시를 받던 몽골이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 점차 華·夷에 대한 구별이 없어졌던 것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夷도 변하여 華가 될 수 있고, 華도 변하면 夷가 될 수 있다는 것이 元에 의해 증명되었으며, 이것은 그동안 고착화 되어 있던 華夷觀이 누구나 華가 될 수 있다는 자유로운 사유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문화적 자부심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다.

2. 民族 情緒의 再發見

목은은 그의 시에서 인명, 서명, 관직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시어로 많이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들 명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인명과 지명, 서명 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명사들이 더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명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이 많다.

熊津水白山如畫	熊津의 물은 맑아 산이 그림 같고
馬邑山靑水似襟	馬邑의 산은 푸르러 물이 옷깃과 같네.
瘦竹一林無恙否	여윈 대나무 숲은 탈없이 있는지?
遠遊塵土滿簪巾	멀리 노니느라 먼지가 두건에 가득하네. ²³⁾

원에 있으면서 고향인 한산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으로 ‘熊津’과 ‘馬邑’을 시어

23) 『詩藁』 卷3, <思鄉>.

로 언급함으로써 훨씬 더 친근하고 푸근한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內浦에는 군영이 있고, 西原에는 옛 친구의 집이 있네(內浦屯營處 西原舊故家)”²⁴⁾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명을 시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어로 중국의 고사나 인명, 지명 등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고유의 명사를 다양하게 사용한 목은은 東國의 山河와 文化, 人物 등 모든 방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사상이 시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

國東山水冠朝鮮	關東의 산수가 朝鮮에서 으뜸이기에
有意高尋已數年	멀리 찾기를 뜻한 지 이미 여러 해이네.
欲問瑜珈向玄化	瑜珈를 묻고자 玄化寺로 향하고
因求水墨入黃延	水墨畫를 구하러 黃州와 延安에 들어가리.
義相絕頂長舒嘯	義相臺 꼭대기에서 길게 노래부르고
靈隱深崖暫坐禪	靈隱寺의 깊은 낭떠러지에서 잠깐 좌선하리.
直借朴淵千尺瀑	곧바로 천 자나 되는 朴淵瀑布를 빌려다가
滌清塵劫死生緣	영원한 생사의 인연을 맑게 씻고 싶네. ²⁵⁾

이 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은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하에 대한 애정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먼저 ‘朝鮮’이라는 명칭이 특별하다. 이미 목은은 이전의 많은 시에서 우리나라의 시조인 ‘檀君’과 ‘古朝鮮’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국이 ‘唐堯戊辰年’임을 강조하여 중국의 역사에 비견하여도 대등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한 한 시기에 매이지 않고 통시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려는 목은의 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어가 바로 ‘朝鮮’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우리나라의 산천, 특히 관동의 여러 지명과 명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경치를 잘 나타내고 있다. 瑜珈의 대표로 꼽히는 玄化寺, 산수 화처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黃州와 延安, 義相臺, 靈隱寺, 朴淵瀑布 등과 같은

24) 『詩藁』 卷10, <代書奉寄韓同年3 首>.

25) 『詩藁』 卷12, <述懷>.

우리나라 자연을 시어로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산천과 인물, 관직 등 이외에도 풍속²⁶⁾과 사물에 대한 명칭을 사용한 예는 목은의 시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稚子啼呼索點心	어린애가 울며불며 먹을 것을 졸라대니
老婆吹火石鑪深	할머니가 돌솥을 걸고 불을 불어대네.
醬湯油餅烹來較	장국이며 부침개를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오자
尋常驕語音	울던 아이 금방 귀엽게 재롱을 떠네.
道味生時須自驗	도의 참맛 느낄 때는 스스로 경험을 해야 하니
天機動處有誰尋	천기가 움직이는 곳을 누가 찾아보았을까?
老翁日用眞無事	늙은 노인네 매일 진정 할일이 없는지라
遇興悠然試一吟	흥이 일면 유연히 시 한 수 읊조려 본다네. ²⁷⁾

여기에서도 목은은 ‘點心’, ‘醬湯’, ‘油餅’ 등과 같은 일상 생활용어를 자연스럽 게 시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어는 물론 한자어이다 그러나 내포된 의미 는 바로 우리들이 쉽게 사용하는 ‘점심’, ‘장국’, ‘부침개’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용어를 시어로 쓴 경우도 많다. “참새는 물동이 위로 나는데, 뜻이 있어서지 어찌 괜히 그러겠는가? (雀飛東海上, 用意豈徒然)”²⁸⁾ “차갑게 귀에 들어오는 창 밖의 바람 소리, 가련하구나 높은 산 헤매고 다닐 나무꾼이 누더기 옷 걸쳐 입고 두 발은 맨살을 보일텐데, 온돌방에선 귀한 분들 두 다리 뻗고 계시겠지(聽外風聲入耳寒, 可憐樵徑繞巉岬 弊衣又見雙跟露, 溫突仍將兩脚盤)”²⁹⁾ “가련하게도 몇 자의 모시베가 우연히 사람으로 하여금 길게 탄식하게 하네(可憐數尺毛施布 偶爾令人感嘆長)”³⁰⁾에서와 같이 ‘東海’, ‘溫突’, ‘毛施布’ 와 같은 토속어들을 시어로 사용한 예들이다. 앞의 ‘東海’에 ‘우리말

26) 牧隱의 風俗에 대한 관심은 呂運弼, 『李穡의 詩文學 研究』(太學社, 1995) 중 李穡의 詩世界에서 ‘民生과 風俗에 대한 愛情’이라는 항목으로 다루어 참고할 수 있다

27) 『詩藁』 卷28, <兒啼飢 一首>.

28) 『詩藁』 卷22, <偶題二首 俗呼銅盆曰東海>.

29) 『詩藁』 卷31, <聞風聲有作>.

30) 『詩藁』 卷9, <紀事>.

에 놋동이를 동해라 한다(俗呼銅盆曰東海)'는 주를 달아놓고 있으며 뒤의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온돌방'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뒤의 것은 누더기를 걸치고 추운 날 나무를 하기 위해 높은 산을 헤매고 다닐 나무꾼과 따뜻한 온돌에 편안히 앉아 있을 귀한 분들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모시베'에서는 '모시'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과 '布'라는 한자어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 것이 재미있다. 그 외에도 '약밥(藥飯),'³¹⁾ '찰밥(粘飯),'³²⁾ '팥죽(豆粥),'³²⁾ '오이장아차(醬瓜),'³³⁾ '청어(靑魚),'³⁴⁾ '백설기(雪飴),'³⁵⁾ 등 우리나라 고유 음식을 소재로 하여 시를 지은 것이 있다.

粘米如膠結作團	찰진 찹쌀로 둥근 경단을 만들어
調來崖蜜色爛斑	산꿀을 넣으니 빛이 아롱졌구나.
更教棗栗并松子	게다가 대추와 밤에 갖까지 보탤으니
助發恬甘齒舌間	군침이 이와 혀 사이에 도네.
三韓今夜月團團	삼한에서는 오늘 밤에 달이 둥근데
最怕微雲作錦斑	얼은 구름이 비단무늬 드리는데 제일 두려워하네.
只爲農家占歲稔	다만 농가에서 한 해의 농사를 점치기 때문이지
豈無銀燭照雲鬢	어찌 검은 머리칼을 비출 은 촛불이 없는 탓이라? ³⁶⁾

이 시는 정월 대보름을 소재로 하여 지은 것이다. 우리의 풍습에 정월 보름날이면 찹쌀을 해 먹고, 저녁이면 둥근 달을 보면서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또한 보름날 밤에 달무리가 지면 그 해의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는 풍습까지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목은은 다시 “이 두 수는 모두 우리 동방의 풍속을 노래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 다른 날 중국의 친

31) 『詩藁』 卷25, <赤城兪判事送藥飯>.
 32) 『詩藁』 卷17, <豆粥>.
 33) 『詩藁』 卷13, <卽事>.
 34) 『詩藁』 卷14, <賦靑魚>.
 35) 『詩藁』 卷7, <詠雪飴>.
 36) 『詩藁』 卷13, <粘飯>.

구가 나의 이 시를 읽으면 당연히 한바탕 웃을 것이다(右二首, 皆詠東方風俗, 非中國所知也. 異日中原故人, 讀吾此詩, 當付一笑耳)”라고 주를 달고 있다

碧玉長仍嫩 푸른 줄기 길면서도 연한데
 山崖翠葉寒 산 언덕에 비취색 잎이 싸늘하네.
 乍看眉已蹙 언뜻 보아도 눈썹이 이미 찡그려지고
 欲嚼齒先酸 씹으려 하면 이가 먼저 시리다.
 醉客偏多嗜 술 취한 사람 가운데 유독 즐기는 이가 많은데,
 眠魔詎敢干 졸음 귀신이 어찌 감히 침범하라?
 詩篇容不載 시편에 쉽게 담지 못하여
 一詠一長歎 한편으로 읊으면서 한편으로 길게 탄식하네.³⁷⁾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僧莪’라는 우리의 이름을 가진 식물을 읊은 것이다. 이 식물은 현재의 ‘싱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뿌리나 줄기를 찌어 즙을 먹으면 해열작용이 있으며 아주 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목은은 싱야의 특성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이나 언덕에 많이 있는 이것은 푸른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신맛이 나서 보기만 해도 벌써 얼굴이 찡그려진다고 하였다. 위의 시에서 보면 숙취에 이 즙을 먹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목은은 마지막 尾聯에서 이러한 것을 쉽게 시에 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에 우리나라 고유의 소재로 시를 짓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또한 “啖來禽”³⁸⁾의 ‘來禽’은 ‘林禽’이라고도 하며 ‘능금’을 뜻하는 것이다. 목은에게 東國과 東國의 文化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쓰지 못하던 토속적인 소재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문학형태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더구나 목은은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고려의 풍속과 일상생활, 그리고 속담, 속어 등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시작 습관에 비추어 본다면 특이한 것이어서 조선시대의 시화집에서 “多有鄙疎之態”³⁹⁾라

37) 『詩藁』 卷11, <詠僧莪 其莖甚酸 僧莪鄉名>.
 38) 『詩藁』 卷24, <啖來禽>, “皮帶微紅雪作肌 團團已向未秋肥 知渠爛熟還如腐 政爾甜得所歸 出壑水應置寒露 帶霜楓已照斜暉 右軍有帖聯青李 坐想當年筆一揮”

는 비평을 듣기도 하였다.

雀晝傳言鼠夜傳
耳垣相屬古猶然
誰知一念纔萌處
粲爛光明已照天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데
담장에도 귀가 달린 것은 옛날에도 그랬다네.
누가 알겠는가, 한 가지 생각이 막 생기는 곳에
찬란한 밝은 빛이 벌써 하늘에 비추는 것을

添不曾知減却知
由來人事畏分離
兒孫團聚終身樂
天地中間果是誰

더해지는 것은 몰라도 줄어드는 것은 아는데
본래 사람 일은 헤어짐을 두려워한다네.
자손들과 단란하게 모여 사는 것 終身の 즐거움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사람 과연 누구일까?

前若貧居後富居
人言此語定非虛
莫嫌借屋頻移徙
幸有承宣上直廬

전에 가난했던 사람은 뒤에 부자가 된다는데
사람들의 이 말이 참으로 빈 말이 아니네.
남의 집 빌려서 자주 이사함을 싫어하지 말게
다행히 승선을 만나면 直廬에 오르리니.⁴⁰⁾

제목이 이미 俚語를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俚語를 사용하여 시를 짓는 것이 그만큼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담에도 귀가 달렸다”, “드는 줄은 몰라도 나는 줄은 안다”, “고생 끝에 樂이 온다” 등의 속담을 시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속담을 먼저 제시하고 이것을 풀이하여 교훈을 주고자 하였다.

見獐負網有古語
我自脫頤奚問他
膽大於身吐群策
偶爾屢中應被訶

“노루 본 놈이 그물 짊어진다”는 옛말이 있어
나조차도 크게 웃는데 어찌 남에게 물으랴?
겁없이 여러 계책을 내놓았다가
우연히 여러 번 적중되었으니 꾸지람 받음 당연 하
네(이하 생략).⁴¹⁾

39) 成俔, 『慵齋叢話』 卷1.

40) 『詩藁』 卷19, <偶記俚語>.

이 시는 목은의 나이 29세 때인 1356년(丙申, 공민왕5)에 지은 것이다. 이 해에 목은은 원의 관직을 모두 사직하고 고려로 돌아왔으며, 공민왕에게 ‘時政十事’를 건의하여 모두 받아들여졌는데, 이로부터 목은의 본격적인 관직생활이 시작되었다. 목은이 건의한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政房 42)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인재 등용을 막는 정방의 철폐를 강하게 주장한 목은은 정방이 철폐된 후 吏部侍郎과 兵部郎中을 겸직하게 되었으며, 이 두 직책은 관리의 인선을 담당하는 것으로 文臣과 武臣의 인사를 목은이 모두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동료들이 “李侍郎自求之也”라고 놀리자 이 시를 지어 해명한 것이다.43)

여기에서 목은은 “노루 본 놈이 그물 깊어진다”라는 속담을 먼저 들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직접 당한 사람이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지금의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또한 ‘답이 몸보다 크냐’는 말은 속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서움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관용어구이다. 그 외에도 “세상 일 구절양장 같은 길이요, 사람의 마음은 마이동풍이라네(世事羊腸路, 人心馬耳風)”44)과 같이 ‘九折羊腸’, ‘馬耳東風’과 같은 成語들도 시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목은은 동국의 역사와 인물을 자연스럽게 시의 소재와 제재로 사용한 것은 물론 동국의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시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동해’, ‘온돌’, ‘모시베’, ‘오이장아치’, ‘백설기’, ‘능금’, ‘싱아’ 등과 같은 고유의 음식, 과일, 식물들까지도 시에 사용함으로써 동국 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속담, 풍속, 일상생활, 속어까지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한시의 형태가 중국의 형식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 토속적인 것으로 채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시를

41) 『詩藁』 卷4, <解嘲吟>.

42) 政房은 무신집권이 시작되면서 관리의 임용을 담당하는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무신집권이 끝난 후에는 권문세족들에 의해 장악되어 신진관료의 진출을 막고 문벌귀족 정치를 유지하는 기관이 되었다. 奇轍을 중심으로 하는 俯元輩들을 제거하고 비로소 恭愍王5년에 철폐하였다.

43) 『詩藁』 卷4, <解嘲吟>, “是歲奇氏之難作, 君臣礪精更化, 中官傳旨各司求直言, 穡不揆鄙淺, 具陳十數事, 皆蒙施行. 罷政房, 其一事也. 未幾, 除穡吏部侍郎, 歲末, 考百官勤慢而殿最之, 吏部實掌其任, 同列皆笑曰, 李侍郎自求之也. 於是作短歌以解之.”

44) 『詩藁』 卷5, <讀同年司空伯宣送李永哲詩, 次韻因勉李生云 伯宣名贊>.

지을 수 있었던 것은 東人으로서의 강한 자긍심과 문학적 역량에 대한 자부심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結言

원 간섭기 문학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동국의 지명이나 사적을 중심으로 시문을 창작하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원에 가서 중국의 문물을 접해 본 문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 목은은 20 여세의 젊은 나이로 중원에 들어가 3년간 수학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고려인들의 실상을 보았으며 중원의 문화에 결코 뒤지지 않는 고유한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변방의 오랑캐로 멸시를 받던 몽고족이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오르면서 점차 華·夷에 대한 구별이 없어져 夷도 변하여 華가 될 수 있고, 華도 변하면 夷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고착화 되어 있던 華夷觀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목은은 그의 시에 전통적으로 中原과 邊方으로 대별되던 華夷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물을 소재로 사용하여 시를 지음으로써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고자 하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풍습 음식, 속담 등을 소재로 자연스럽게 시를 창작하였으며, 고유어를 시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도 고려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은의 인식은 益齋의 격려가 큰 촉매가 되었으며 이미 고려사회에 자리하고 있던 분위기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까지 중국의 시문을 모방하고, 중국의 사적과 역사를 시문의 소재로 사용하며, 그들이 보고 생각한 것에 근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고유의 소재와 사상을 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하겠다. 동인의 문학은 남을 모방하거나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저 오랑캐로 천대받던 몽고족이 중원 대륙의 지배자로 인정되는 것처럼 고려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高麗史』.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2.
- 『高麗史節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3.
- 金乾坤(외), 『고려시대 역사사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김성룡, 「최혜의 민족문학론」.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서울: 한길사, 1995.
- 閔思平, 『及菴詩集』 (『韓國文集叢刊』 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 徐居正, 『東人詩話』. 서울: 이우출판사, 1981.
- 魚江石, 「高麗 後期 文人의 元 文化 受容과 意識 變化」. 『開新語文研究』 20, 2003.
- 呂運弼, 『李穡의 詩文學 研究』. 서울: 태학사, 1995.
- 李穀, 『稼亭集』 (『韓國文集叢刊』 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 李穡, 『牧隱集』 (『韓國文集叢刊』 3 · 4 · 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 李佑成, 「高麗詩人에 있어서의 文明意識의 形成」. 『梨花史學研究』 3, 1968.
- 李齊賢, 『益齋亂藁』 (『韓國文集叢刊』 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 李慧淳, 「高麗後期 士大夫 文學과 元代文學의 관련양상」. 『韓國漢文學研究』 3, 1985.
- 林煥澤, 「고려 말 文人知識層의 東人意識과 文明意識 牧隱文學의 논리와 성격에 대한 序說」. 『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 서울: 一潮閣, 1996.
- 崔滄, 『東人之文』 (『高麗名賢集』 5). 서울: 대동문화연구원, 1980.
- 崔滄, 『拙藁千百』 (『韓國文集叢刊』 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 韓榮奎, 「최혜의 시문학과 선시의식」. 성대 석사논문, 1992.

● 투고일 : 2005. 8. 30.

● 심사완료일 : 2005. 11. 30.

● 주제어(keyword) : 牧隱(Mokeun), 益齋(Ikjae), 東人意識(Koryeo's self-esteem), 文明意識(Realization of civilization), 檀君(Tangun, the founding father of the Korean nation) 風俗詩(a poem of manners), 俗談(Proverb), 歷史詩(Historical Poem)